

교회소식

- 그리스도인에게 선교는 의무가 아니라 기쁨입니다 ▪

이번 부활절에 세례·입교를 희망하시는 분들은 사무실에 신청하시고 예비교육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유아세례교육은 4월 5일(토) 오후 2시, 성인세례교육은 오후 3시, 성인입교교육은 4월 12일(토) 오후 3시 사랑방 사무실에서 있습니다.

농도생협에서 친환경 황토농장의 부활절 유정란을 예약주문 받습니다. 유정란 30알 10,000원 구운 유정란 30알 13,000원입니다.

미자립교회를 돕기 위한 초록장터가 4월 27일에 열립니다. 4월 20일까지 물품 기증을 받습니다. (개인, 기업체, 예술품 등)

사순절 기간에는 '사순절 달력'의 실천사항을 힘써 지킵니다.

삼상 16:1~13 / 시 23 엡 5:8~14 / 요 9:1~41
--

마 22:1~14

오늘 식당 봉사 : 정경례 배삼순 김미현 김진선 권현숙 구성실 김재환
 다음 주 식당봉사 : 김윤정 조병주 최은미 박시내 김명하 오형일 윤성중
 오늘설거지봉사 : 3남선교회
 다음주설거지봉사 : 5남선교회

· 집 회 안 내 ·

부별	시간	장소	부별	시간	장소
유아부	10:50	유아부실	1부 예배	09:30	교육관
유치부	10:50	유치부실	2부 예배	11:00	대예배실
유초등부	10:50	교육관	오후집회	14:00	교육관
중고등부	09:30	교육관	수요집회	19:30	교육관
청년회	13:30	청년회실	새벽기도회	06:00	교육관

- 우리교회의 주보는 재생용지를 사용하여 만듭니다 -



언제나 어디서나 그리스도인



우리를 당신의 몸으로 삼으소서

하나님께서 나아가는 한적한 오솔길
 사랑과 나눔을 배우고 실천하는 곳
 청파교회는 함께하는 공동체입니다

주일 낮 예배 순서

자비하신 하나님, 언제나 우리 삶의 중심이 되어 주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마음을 고요히 하고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생명의 기운이 우리 안에서 샘솟게 해주십시오. 그 생명의 샘물이 메마른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우리를 통해 세상으로 흘러 흘러 새로운 세상을 열어가는 큰 힘이 되게 해주십시오.

주님, 이 사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시민들은 더 이상 정치인에게 희망을 걸지 않습니다. 모든 이에게 공평하게 적용되어야 할 법은 돈을 가진 자를 일방적으로 편듭니다. 국가기관은 국민에게 봉사하기보다는 조직을 위해 국민을 이용합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 사회를 온전히 새롭게 빚어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최희영 선생
김정민 권사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 헌금 영수기 ·

십일조 및 월정헌금

고속이 권혁순 박혜경 김기석 김희우 김범진 김미현 김성우 박유경
김승현 김수진 김정훈 이진영 김종락 박영신 문홍일 박병구 박옥식
박인혁 박준희 이기분 백성래 신진식 변해정 우순덕 윤성종 김윤정
이범석 류정욱 이용석 이재삼 전정현 이주경 이증자 김창경 이진영
한양미 임승동 백혜숙 임주빈 최현옥 장기욱 장아름 전인섭 조문규
진정숙 조병무 송양진 최미자 최재욱 이수정 최종원 한인철 조운숙
허경선 허호범 박성실 홍순복 황경순 황원순 황자순 무명

감사헌금

김인걸 문영혜 박경선 박시내 이광석 이경희 이범석 류정욱 이진영
한양미 임서영 장재구 조은상 김소연 조혜운 참빛찬양대 한미영
홍성식 이유리 무명16

녹색꿈헌금

김범진 김미현 김순자 김향자 김흥기 박호규 강영님 우순덕 윤미경
윤수진 이혜령 김정민 무명1

	백혜숙	박성희	백혜숙	박성희
	신진식	최경미	서원금	이은옥
	장영숙	신영신	최종미	박정숙
	노순옥	진정숙	진정숙	노순옥
	박홍재	박홍재	박홍재	백묘현
	권미숙	박미영	박미영	권미숙
	김금순	김금순	오복순	유금주
	곽권희	윤수진	이정은	곽권희
	안홍숙	오현정	이수정	김명희
	정영선	홍춘숙	정영선	홍춘숙
	박혜경	박혜경	최숙화	최영혜
	김재흥	오자영		
	김재흥	송형운		
	이범석	이진영		
	이범석	곽상준		
	신진식	윤성종		

서울의 밤

- 손총각

서울의 밤은 없다
 그 전기 어디서 오는지 아는가
 바다를 메워 갯지렁이, 바지락 사라지고
 산을 깎아 고라니, 날다람쥐 다 죽이며
 평생을 일궈 온 삶터 송두리째 빼앗겨
 죽음으로나마 지키려는 농부의 고된 투쟁
 전기는 피눈물을 타고 흐른다는 것을
 서울의 밤은 아는가
 기름 한 방울 아끼려 어르신들의 밤은
 입김으로 가득하고
 시골의 밤은 너무 어두운데
 서울의 밤은 무슨 짓을 하고 있는가

* 손총각은 밀양에 살고 있습니다.

▪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이들 ▪

담임목사 : 김기석	부담임목사 : 김재홍 이범석
원로전도사 : 박옥식	전도사 : 장영숙 신진식
소속목사 : 한인철 한정애	소속전도사 : 이재훈
원로장로 : 김성한 윤정덕 강인식 김철수 구성실 조병무	
장로 : 한완식 윤석철 방문성 한상익 김인걸	
지휘 : 윤주원 안홍숙	반주 : 최윤선 김수진 유청빈
차량 및 교회관리 : 오진훈	

교우 여러분, 이제 평안히 돌아가십시오. 복음의 말씀을 들었으니 참 자유인답게 사십시오. 정의와 진리를 위해 자신의 삶을 헌신하는 이들을 하나님께서 도우십니다. 주님만을 의지하며 많은 장애물을 넘어서십시오.

아멘. 작은 어려움 앞에서 쉽게 낙망하던 지난날의 모습을 반성합니다. 정의와 진리의 길을 가는 이를 편드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살겠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힘을 받아 여러 시련을 넘어서겠습니다.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가야할 길을 가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인도해 주십시오. 아멘.

주일 오후 집회	수요 집회
설교 : 이범석 목사	오편기 / 김기석 목사 기도 : 박성희 집사

다음 주 예배위원	설교	기도	성경봉독
	김재홍 목사 김기석 목사	공동기도 홍순구 권사	류정욱 선생 이증자 집사

3월	영접위원	박홍재 박병구 김정민 고숙이 이해령 정연희
	헌금위원	윤석철 정영선 (보조 : 다른 재무부원들)

복음의 기쁨

복음의 기쁨은 예수님을 만나는 모든 이의 마음과 삶을 가득 채워 줍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구원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죄와 슬픔, 내적 공허와 외로움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기쁨이 끊임없이 새로 생겨납니다. 이 권고를 통하여 저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기쁨으로 두드러진 새로운 복음화 단계로 들어서도록 격려하면서, 앞으로 여러 해 동안 교회가 걸어갈 새 길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오늘날 세상의 가장 큰 위험은 온갖 극심한 소비주의와 더불어 개인주의적 불행입니다. 이는 안이하고 탐욕스러운 마음과 피상적인 쾌락에 대한 집착과 고립된 정신에서 생겨나고 있습니다. 내적 생활이 자기 자신의 이해와 관심에만 갇혀 있을 때, 더 이상 다른 이들을 위한 자리가 없어 가난한 이들이 들어오지 못합니다. 하느님의 목소리를 더 이상 들을 수 없고 그분 사랑의 고요한 기쁨을 느끼지 못하며 선행을 하고자 하는 열정도 식어 버립니다. 이는 신앙인들에게도 매우 현실적인 위험입니다. 많은 이가 이러한 위험에 빠져 삶을 잃어버리고 불만과 분노에 가득 찬 사람으로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이는 품위 있고 충만한 삶을 위한 선택이 아니고, 우리에게 바라시는 하느님의 뜻도 아니며,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마음에서 솟아오르는 성령 안에서 사는 삶도 아닙니다.

저는 모든 그리스도인이, 어디에 있든 바로 지금 이 순간 새롭게 예수 그리스도와 인격적으로 만나도록, 그렇지 않으면 적어도 그분과 만나려는 마음, 날마다 끊임없이 그분을 찾으려는 열린 마음을 가지도록 권고합니다. 그 누구도 이러한 초대가 자신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져다주시는 기쁨에서 배제된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길로 나서는 이들을 실망시키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한 걸음 나아가갈 때마다 우리는 그분께서 언제나 그곳에, 두 팔을 활짝 벌리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심을 깨닫게 됩니다. 지금이 바로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드릴 때입니다. “주님, 제가 잘못 생각해 왔습니다. 저는 수없이 주님의 사랑에서 도망쳤습니다. 그러나 이제 여기에서 주님과 계약을 새롭게 맺고자 합니다. 저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 저를 다시 구원하여 주소서.

구원하시는 주님의 품 안에 다시 한 번 저를 받아 주소서.” 우리가 길을 잃을 때마다 주님께 돌아갈 수 있다니 얼마나 좋습니까! 저는 거듭 이렇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하느님께서서는 우리를 용서하시는 데에 결코 지지치 않으십니다. 오히려 우리가 하느님의 자비를 청하는 데에 지쳐 버립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다른 이들을 “일흔일곱 번” (마태18:22) 용서하라고 말씀하시고 몸소 모범을 보여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우리를 일흔일곱 번 용서하십니다. 그분께서는 매번 우리를 당신 어깨에 짊어지십니다. 이 무한하고 확고한 사랑으로 우리가 받은 존엄은 그 누구도 빼앗아 갈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결코 실망시키지 않으시고 언제나 우리의 기쁨을 되찾아 주시는 온유함으로, 우리가 고개를 들고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예수님의 부활에서 도망가지 마시다. 무슨 일이 있어도 결코 포기하지 마시다. 오직 그리스도의 생명만이 우리를 계속 앞으로 나아가도록 이끕니다! ...

때때로, 많은 조건이 갖추어져야만 행복할 수 있더라도 한 것처럼 우리는 평계와 불평거리를 찾으려는 유혹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기술사회가 쾌락의 기회를 증대시켜” 왔지만 “기쁨을 낳기는 매우 어렵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제껏 살아오면서 겪은 가장 아름답고 자연스러운 기쁨은 가진 것 없는 매우 가난한 이들의 기쁨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는 또한 직업적으로 중요한 임무를 다하면서도 너그럽고 단순하며 믿는 마음을 지닌 이들의 진정한 기쁨을 떠올립니다. 이 모든 기쁨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 자신을 드러내신 하느님의 무한한 사랑의 샘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흘러나옵니다. 저는 우리를 복음의 핵심으로 인도하시는 베데딕토 16세의 말씀을 결코 지침 없이 거듭 말씀드립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윤리적 선택이나 고결한 생각의 결과가 아니라, 삶에 새로운 시야와 결정적인 방향을 제시하는 한 사건, 한 사람을 만나는 것이다.”

풍요로운 우정으로 꽃피우는 하느님 사랑과 만남으로써, 또는 그 사랑과 새롭게 만남으로써 비로소 우리는 자신의 고립감과 자아도취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우리가 더욱 인간다워질 때, 곧 우리 자신을 벗어나 우리 존재의 가장 완전한 진리에 이르도록 이끄시는 하느님께 우리 자신을 내어 맡길 때, 비로소 우리는 온전한 인간이 됩니다.